

## 언어제국주의를 넘어서: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ELT 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 제시

안종협\*

### 요약

본 연구는 우리 영어교육의 현실이 언어제국주의(linguistic imperialism (Phillipson, 1992) 틀 속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II에서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이나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차원이 아닌 EIL(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차원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단일어로서의 영어, 언어제국주의, 언어의 다양성, 언어들원주의 등 여러 차원에서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다. III에서는 언어제국주의에 대한 지배담론과 그에 대한 저항과 한계에 대해서 고찰한다. IV에서는 세계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제이해교육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적용한 영어교과서 편찬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본다. 결론에서는 언어제국주의의 시각을 벗어나

\*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영어학), 98ahnjh@hanmail.net

바람직한 영어교육의 방향을 국제이해교육의 틀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을 제안하고, 차후 영어교과 내에서 국제이해와 다문화이해에 관한 콘텐츠 개발과 적합한 영어교수법 개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한다.

주제어: 언어제국주의, 국제어, 문화교육, 다문화 이해, 다양한 영어

## I. 서론

인류는 이미 세계 전체가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바뀌어 국가 간의 울타리가 무의미해지는 세계 단일화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사회구조, 문화, 행동양식은 물론이고 인간의 내면적 의식까지 세계 단일화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세계화를 가속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 중 세계인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영어의 부각은 가히 주목할 만하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기 전 시대에 영어를 배운 것은 단지 영국인이나 미국인과 대화하기 위해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영어는 세계에 곳곳의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공통의 의사소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언어로 여겨진다. 즉, 세계화시대에 국제어(EIL,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로서 영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영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세계화에 편승하여 국제어로서 영어를 배워야 하는 시대적 맥락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다문화·다인종사회<sup>1</sup>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른 문화에 대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영어교과에서는 영미문화지도<sup>2</sup>(특히 미국 중심의 문화)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학생들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로 세계인과 의사소통하며 다인종·다문화사회를 살아가야 할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 현실은 자칫 미국중심적인 편협한 시각을 심어주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국제어인 영어를 수단으로 의사소통하고 또한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우리의 학생들이 미국 중심의 편향된 의식과 세계관에 빠져 문화적 식민주의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우려조차 있는 것이다(윤지관, 2007).

본 논문은 세계화시대에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영어를 배운다면, 영·미식 문화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데 착안하여(Canagarajah, 1999; Kirkpatrick, 2006) 그 극복 방안을 찾고자 하는 시도로서 영어교육 콘텐츠에 대한 국제이해교육·다문화이해교육의 기본 개념과 원리의 적용가능성과 방향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1 『문화일보』 2007년 9월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도 급증하여 4만 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또한 『조선일보』 2007년 8월 23일자 보도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설문조사를 소개했다. 이 설문에 응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43.3%가 자신이 외국인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21.7%가 이민을 가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다인종화되어가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이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들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기사이다.

2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화교육이란 ‘광의廣義의 문화교육’임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문화교육은 언어교육을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언어는 곧 문화의 한 요소라고 본다. 실질적으로 현 7차 교육과정 영어교과서에 담겨 있는 문화 내용을 추출한 바(표 2 참조), 문화 간 이해를 향상시켜 미국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미국문화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미국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 내용이 많았다. 그리고 국제어로서 영어교육은 특정 문화만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인종 간의 의사소통수단으로서 영어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狹義의 문화’에 관한 교육방법은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 II. 이론적 고찰

### 1. 영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

언어의 습득은 곧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문화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Brown, 2002). 따라서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무시하고서는 완전한 의미의 외국어 습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브라운Brown(2002)은 외국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는 언어적인 연습 이외에 외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습득하면서 그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교육의 중요성은 리버스Rivers(1981)가 정의한 외국어교육의 목표에서도 잘 드러난다. 리버스는 외국어 교육의 목표<sup>3</sup> 중 효과적인 외국어교육을 하기 위해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이 다른 문화의 환경적 특성과 외국인의 생활양식 및 사고방식을 이해함으로써 국제이해증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내림으로써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이 되려면 문화의 이해를 포함하는 외국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근래에 들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교류가 많지 않았을 시절에는 외국어로 된 글을 이해하

---

3 리버스는 외국어교육의 목표를 첫째, 학습자의 지적 능력의 발달, 둘째, 문학이나 철학 작품을 통한 교양 고취, 셋째, 모국어 기능에 대한 인식 증대, 넷째, 독해 능력의 향상으로 인한 최근의 저술·연구에 관한 정보 증진, 다섯째, 다른 문화 환경적 특성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 여섯째, 외국인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이해를 통한 국제 이해 증진 및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라는 6가지의 범주로 밝히고 있다(Rivers, 1981).

고 감상할 수 있는 언어적 지식이 우선시되었다. 즉 세계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국제교류가 빈번해지면서 목표어로의 의사소통이 영어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소통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목표어권의 문화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한국의 경우 미국의 문화가 영어 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미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우리 교과과정 내 문화교육의 목표인 것처럼 비추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리버스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문화를 가르치는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국제이해증진의 차원에서 외국어 학습은 다양한 영어 World Englishes<sup>4</sup>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외국어 학습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 2. 문화 간 의사소통으로서 EIL

영어교육은 세계화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고, 또한 ‘특수성의 보편화’ 그리고 ‘보편주의의 특수화’로 간주되는 세계화 과정의 영향 아래 있다. 페니쿱Pennycook(1994)이 지적한 대로 영어는 세계와 불가피하게 엮

---

4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국제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모국어화된 영어 변이형(nativized varieties of English)이 나타나게 되었다. 영어가 미국과 영국의 문화를 알고 가르치기 위한 도구나 미국인이나 영국인과 대화하는 수단이 아닌 국제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로 쓰이게 됨으로써 영어의 기능과 위상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World Englishes’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 개념에서 보면 원어민의 발음이나 특정 용어는 다양한 영어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즉, 국제어로서의 영어는 남의 언어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우리 모두의 언어이고, 원어민과 비원어민은 대등한 위치에 있는 대화 상대자이며, 모국어 뿐 아니라 제2언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영어도 표준영어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교육에서도 달라지고 있는 영어의 위상과 기능에 발맞추어 학습자를 가르치는 것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Kirkpatrick, 2006: 27-34; Kumaravadivelu, 2008: 209-220).

여 있는 지배적인 언어적 패러다임이다. 페니쿵은 그러한 영어의 세계적 지배 확산을 “영어는 세계 안에 있고, 세계는 영어 안에 있다”고 묘사했다. 영어는 1992년에 45개국, 1997년에는 70개국에서 여러 거대 언어들 중 공식 언어로 채택되었다(Crystal, 2003). 이것은 영어가 1997년까지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나라에서 공식어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영어를 크리스털(Crystal, 2003)은 캐츠루(Kachru<sup>5</sup>)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국어로서 영어사용권(inner circle), 식민지 시대의 유산으로서 영어공영화권(outer circle), 그리고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하는 국가(expanding circle)로 나누고 그 인구수를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의 수보다 영어를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 속에서 사용하는 화자의 수가 더욱 많음을 보여준다. 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세계 어디를 가거나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FL 그리고 EIL로 영어를 학습한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크리스털(2003)도 지적한 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각기 자기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는 영어를 말할 때는 나라마다 억양이나 발음이 다른 영어를 사용지만 화자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EIL로서 영어를 구사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Phillipson, 1992;

---

5 캐츠루(1998)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영어를 세 가지 동심원으로 간주하였다. 중심원(inner circle)에는 전통적인 영어의 본거지를 포함시켰다. 확장원(outer circle)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환경에서 영어 확산의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로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를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확장되고 있는 원에는 국제어로서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시켰다.

표 1 | 영어의 세 가지 원(The three circles of English)

권역	해당국가	인구수(백만)
중심원(inner circle)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320~380
확장원(outer circle)	인도, 싱가포르, 말라위 등 옛 영국이나 미국의 식민지였던 50여 개국	300~500
확장되고 있는 원(expanding circle)	영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나라들로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나라들	500~1000

Kumaravadivelu, 2008; Pennycook, 2001). 발음이나 악센트가 조금은 이상하지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면 어느 나라의 발음이 표준인지에 관한 구분은 불명확해진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동부 보스턴 백인 남성의 발음과 악센트를 표준으로 삼는 현실과 대조된다. 즉 미국식 발음이 아닌 다른 악센트가 묻어 있는 원어민 강사는 그들의 영어 구사력과 표현력 그리고 문장력에 상관없이 학교와 학원에서 푸대접 받는 것이 현실이며,<sup>6</sup> 일반화할 수 없으나 보통 한국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영어가 표준이며 그 표준에서

6 본 연구자는 이에 대한 질적 연구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야기되었던 원어민 강사(캐나다 퀘벡 출신으로 L1이 프랑스어고 L2가 영어)와 생도들 간의 문제를 연구하여 대한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2008년 5월 24일)에 발표한 바 있다. 군의 특성상 본 사관학교에서는 원어민 채용에 관한 예산 부족과 간부들의 원어민에 대한 고정관념(미국-백인-여자)으로 인해 외국인 채용에 상당히 제한적이다. 지원자 중 미국인 백인 남성은 고려되지 않아, 지원자 중 차선책으로 미국과 발음이 유사한 캐나다 여성을 채용했다. 원어민의 교육자적 배경과 자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며, 대외적으로 보이는 '품질(?)'이 주요 관건으로 고려되었다. 엘리스 Alice(가명)는 이렇게 해서 본 사관학교에서 1년간 생도들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치게 되었다. 완전한 미국식 발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한국문화와 교육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엘리스는 교실에서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그녀의 변종(미국 발음과 다른 프랑스 악센트) 발음은 생도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생도들은 급기야는 그녀의 수업에 저항하였다. 엘리스는 강사직을 포기하고 캐나다로 귀국했다. 'World Englishes' 차원에서 보면 엘리스의 발음이나 영어구사력은 의사소통수단으로 전혀 손색이 없었으나, 프랑스 악센트가 묻어 있는 영어발음이 질적연구 결과 주요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안종협, 2008).

벗어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역할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가 대화를 할 때 영어로 의사소통과 이해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영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영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를 확장시켜보면, 세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시대에 영어의 역할은 공통의 의사수단 역할을 해내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영어를 학습하고 영어를 구사해야 하는 이유도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여기에서는 다양한 영어world Englishes에 대해 존중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다 (Kirkpatrick, 2006).

### 3. 언어제국주의

영어를 우리 사회의 의사소통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교과목으로 존재하는 영어교육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우리 사회 내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영어를 주장하다 보면 영어교육 시기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고, 영어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좋고, 영어는 영어로만 가르쳐야 하고, 영어로 다른 과목도 가르쳐야 한다는 식으로 가다가 이미 1998년에 한 번 촉발된 바 있는 영어 공용어화론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최근의 문화연구라든지 또는 최근의 비평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언어의 정체에 대해 우리 삶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카나가라자Canagarajah(1999)는 언어라는 것이 중립적이고 투명한 전달수단이 아니고 사회적·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장소라고 정의하며, 지루 Giroux(1991)는 우리는 모든 사물을 그대로 보지 않으므로 언어는 우리가

현실을 보는 방법을 구조화시켜준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논조와 맥을 같이하는 이론으로 필립슨Phillipson(1992)의 언어제국주의linguistic imperialism는 대표적 예라 볼 수 있다. 그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이는 세계화 또는 국제어라는 말 뒤에는 실질적으로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된 상업화와 언어식민화과정의 숨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영어의 언어제국주의적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Phillipson, 1992: 47).

영어와 다른 언어 사이에 구조적·문화적 불평등의 확립과 계속적인 재구성에 의해 단언되고 유지되는 지배 권력(the dominance asserted and maintained by the establishment and continuous reconstitution of structural and cultural inequalities between English and other languages)

필립슨(1992: 185-217)은 영어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영국문화원을 비롯한 영미의 교육기관에서는 영어교수법과 영어에 관련하여 학술적 근거가 없는 다음과 같은 이론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며, 이를 5가지의 잘못된 생각fallacy이라고 정리하였다.

- 단일언어 오류Monolingual Fallacy: 영어는 영어로 가르쳐야만 최고의 결과를 얻는다. English is best taught monolingually;
- 원어민 오류Native Speaker Fallacy: 이상적인 교사는 원어민이어야 한다. the ideal teacher is a native speaker;
- 조기교육 오류Early Start Fallacy: 영어는 배우는 시기가 이룰수록 결과가 좋다. the earlier English is taught, the better the results;
- 최대노출 오류Maximum Exposure Fallacy: 영어를 많이 가르칠수록 결과가 좋다. the more English is taught, the better the results;
- 마이너스 오류Subtractive Fallacy: 만약 다른 언어를 같이 가르치면 표준영어는 상실될 것이다. if other languages are used much, standards of English will drop.

과연 필립슨이 제기하는 이와 같은 오류는 학술적 근거나 실체가 있는 이론일까? 페니쿱, 홀리데이Holiday, 카나가라자와 같은 학자들은 이와 같이 필립슨이 제기한 5가지 오류에 대해 신화myth라고 주장하며, 언어가 지배권력과 유착하여 만들어진 허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배적 영어교육이 신봉해온 상식적인 접근법을 기본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이창봉, 박주식, 2007).

언어제국주의적 속성을 영어교육차원에서 살펴보면 홀리데이(1992)는 거의 모든 영어교수법이 BANA에서 독점적으로 개발되어 TESEP으로 전파되어 온 결과 그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sup>7</sup> 영어교육이 하나의 상품commodity이라며 그 위험성을 제기한다. 그 이유는 첫째, 영어는 세계적인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의 교수법과 충돌을 일으키는 영어 중심국의 교수법과 이론이 영어와 함께 이용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중심국의 영어교육을 우수한 것으로 받아들여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sup>8</sup> 이에 따라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수 환경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할 의욕을 잃고 주어진 자료, 즉 교과서에 심하게 의존하거나 자신 없이 가르쳐온 대로 가르치게 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

7 홀리데이는 그의 책에서 BANA와 TESEP으로 영어교육을 받는 국가를 양분화하였다. BANA은 'Britain, Australia, and North America'의 머리글자로서 각각 영어교수법을 개발한 지역을 가리키며, TESEP은 'Tertiary, Secondary, and Primary'의 머리글자로서 도구적 동기를 갖고 영어를 배우는 국가의 대학, 중등 및 초등학교를 가리킨다. 또한 TESEP은 전체적으로는 교과목으로 영어를 배우는 상황을 가리킨다(Holliday, 1992).

8 거의 모든 영어교수법이 전체적으로는 도구적 동기를 갖고 영어를 배우는 중심국인 BANA국의 환경에서 독점적으로 개발되어 교과목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상황인 TESEP 국가로 일방적으로 전파되어 온 결과, TESEP의 교사들은 BANA의 교수법을 항상 이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지만 교사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이는 충분히 활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교수법이어서 결과적으로 TESEP 지역의 교사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게 된다고 주장한다(Holliday, 1992).

#### 4. 영어에 의한 단일언어주의

스쿠트넵-켄게스Skutnabb-Kangas에 의하면 영어에 의한 단일언어주의 monolingualism은 그릇된 교육 정책과 언어의 이데올로기로부터 파생된다고 주장한다(Skutnabb-Kangas, 2002).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단일언어주의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세계적 개발, 정의, 평등, 협력과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는 구조라고 그는 주장한다. 게다가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영어에 의한 단일언어주의, 단일언어환원주의는 결국 언어제국주의를 초래하고 이에 의해 통용되는 언어들 중 영어가 가장 강력한 언어로서 세계와 강력한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털(2000)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 더욱 강한 어조로 영어는 세계에서 주도적인 나라들의 공식 언어가 되어가고 그 강력한 지배력과 독점성으로 인해 세계에서 다른 언어에 대한 영어의 언어적 집단학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sup>9</sup>

또한 지구상에 현존하는 언어가 약 6000여 개나 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살아남는다는 섬뜩한 예견은(Crystal, 2000),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마찬가지로 패권적인 영어의 세계화가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와 모국어 간에 서열을 매기고 문화의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사회문화적 종속으로까지 이어진 지난 역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영어는 국제어로서 의사소통수단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보기

---

9 크리스털(2000)은 ‘언어의 죽음(The Death of Language)’라는 책에서 세계의 6,000가지 내외의 언어 가운데 600가지 정도만이 멸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21세기 말 무렵이면 세계는 소수의 주류 언어가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런 현상은 대규모의 환경파괴와 마찬가지로 유독 우리 시대에 발생하여 점점 더 세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소규모 언어들이 급속도로 위기에 처하고 죽는 현상은 특정 언어들의 쇠퇴와 소멸의 문제를 넘어 언어의 정체성과 문화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UNESCO에서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관한 많은 연구를 실시하고, 바벨 사업Babel Initiative과 같은 해결 방안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힘들고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하에서 진행된 영어교육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동부 보스턴의 백인 남성의 발음과 악센트를 표준으로 여기고 중심국(BANA)의 백인 원어민 교사에 대해 맹신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미국식 문화와 언어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필립슨(1992)은 그의 책 『Linguistic Imperialism』에서 더 강력한 어조로 영어와 영어교육의 세계적 확산을 비판한다. 그는 언어차별주의linguicism<sup>10</sup>를 일방적으로 영어만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차별로 보고 인종차별주의와 동류어 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Phillipson, 1992). 영어의 언어제국주의적 속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과 관련하여, 카나카라자(1999)는 타밀Tamil지역의 영어에 대한 저항을 분석하면서 영어의 우세는 중심부와 변방 간의 정치·경제적 불평등의 결과일 뿐 아니라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결론내린다.

## 5. 언어적 다양성

언어의 다양성은 단일언어 환원주의와 구조적 결정론의 시각에서 파생되는 언어주의, 언어적 집단학살 그리고 언어제국주의에 상반되는 시각이다. 이러한 관점은 한 언어나 모국어의 정체성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언어가 우리 안에서 자아와 다른 것들을 상호 창조하는 중심적인 문화적 핵심 가치로서 기능한다는 논쟁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인

---

10 필립슨(1992: 50)은 사회의 성차별sexism이나 인종차별racism처럼 언어차별주의linguicism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그는 “언어에 기초해서 정의되는 그룹들 사이에 권력과 자원의 불공평한 배분을 합법화하고 재생산하는 것”을 언어차별주의라고 정의하면서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말한다.

간의 권리 인식 관점에서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UNESCO, 2003). 이는 언어가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언어의 소멸이 전 세계의 문화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는 인간의 가치를 낳는 유일한 원천이라는 제레미 리프킨Jeremy Lifkin의 말처럼 문화는 인간성을 창조하고 또 다른 문화를 생산하는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지구상의 언어 소멸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바벨 사업The Babel Initiative은 언어 소멸에 대한 대응의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다(UNESCO, 2005). 바벨 사업은 사멸 위기 언어의 자료를 수집해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더 이상 사멸 위기 언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유네스코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대스칼Dascal(1996)은 실용적인 증거, 그리고 윤리적, 존재론적, 인식론적, 인지적인 관점에서 제기된 주장들로 다언어주의를 옹호한다. 예를 들면 그는 세 가지 실용적인 증거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언어를 가로지르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둘째는 비록 불완전하기는 해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 셋째는 언어로 인한 혼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영어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영어가 국제어로서 국제적 담론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영어와 국제적 담론이 서로의 확산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영어의 확산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현대화의 관점에서 세계 권력 담론 확산을 가속화하고 그 역도 성립된다(Pennycock, 2001).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영어의 확산과 그 국제적 담론의 중요한 관계를 인식하기 위해 이 둘의 관계를 알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III. 현 ELT 환경에서 영어교육과 문화교육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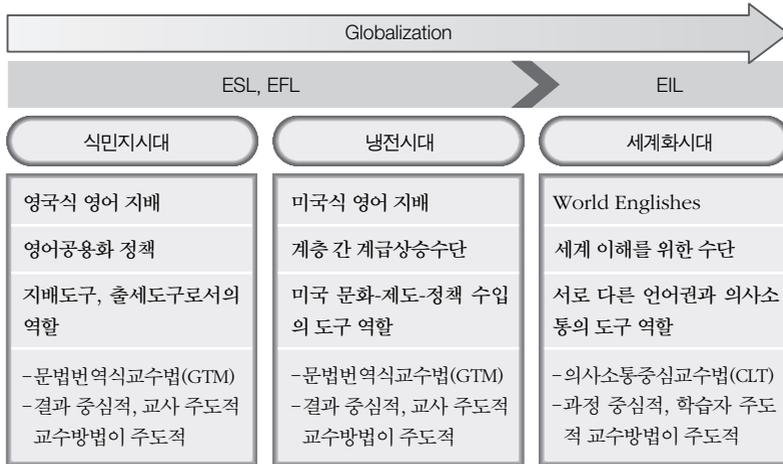
#### 1. 우리 영어교육의 현 주소와 EIL로서의 영어교육

언어제국주의나 언어식민주의와 같이 극단적으로 편향된 시각은 단지 실체가 없는 허상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서론에서 지적한 영어교육의 현실이 영어의 지배권력이 만드는 허상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의 기존 영어와 영어교육에 접근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문화가 있고 모든 문화에는 그와는 다른 문화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게는 낯설게 보이는 고유한 행동양식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상에는 많은 언어가 있고 모든 언어에는 비원어민 화자들에게는 외국어로 인식되는 독특한 양식이 있다. 한편, 세계화 맥락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현대 언어적 담론의 문제에 있어서, 영어의 역할은 EFL이나 ESL에서 EIL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영어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림 1]은 우리 영어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세계화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상한 것이다. 이를 보면 식민지시대에는 영국식 영어가 지배적이었고, 지배계층은 식민지시대의 지배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인의 경우에는 출세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영어를 학습했다(김명배, 2006). 냉전시대에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바, 영어는 미국 문화·제도·정책 수입의 도구 역할을 했으며 미국식 영어와 문화 습득을 위해 영어를 학습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의 영어교육 패러다임은 EIL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 특징으로 World Englishes의 부각을 들 수 있다.

EIL로서의 영어는 세계 이해와 세계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습하는 것이며, 영미인과의 의사소통은 영어교육 목표의 일부에 지나지

그림 1 | 우리 영어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필자 구상)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영어교육 현실은 냉전시대의 영어교육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현실은 상기한 언어제국주의 틀 속에 우리의 영어교육이 머물러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지배담론으로서 만들어지는 언어제국주의 이론으로 우리 사회의 영어교육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편향된 의식을 볼 수 있다. 영어공용화 주장이나 ‘문지마 조기 유학’, 미국 백인 원어민 교사에 대한 병적인 선호 현상, 미국 동부 보스턴 백인 남성의 발음이나 억양이 영어교육의 표준이 되는 현상들은 이러한 언어지배담론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례이다.<sup>11</sup> 영어가 식민주의적 권력행

11 보다 극명한 예를 들면, 영어와 전혀 무고한 직종이나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영어가 인사고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며, 지금도 미국식 발음에서 벗어나는 원어민은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으며, 중심국(BANA)의 백인 여성이나 남성이 아니면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힘들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영어에 대한 편향된 의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

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만하다(윤지관, 2007).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언어제국주의의 틀 속에 있다면 어떠한 영어와 문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영어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이며, EIL의 도구로서 영어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에게 세계화시대에 영어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즉 어느 나라에서 쓰이는 영어를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어떠한 내용으로 영어지도를 해야 할 지에 대해 많은 상반된 주장들이 있다.

혹자는 당연히 미국식 영어를 가르쳐야 하고,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미국문화를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혹자는 영국식 영어가 유럽 대륙 뿐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인구의 수가 더욱 많다는 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끝이 없을 뿐 아니라 세계화 시대 EIL의 도구로 영어를 학습하는 차원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툴란Toolan(2008)의 “세계어로서의 영어는 가고 세계의 영어 혹은 세계를 위한 영어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주장과 같이, 지구화가 전 세계의 획일화된 미국문화와 미국식 영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을 구성해내는 매체 역할을 하도록 승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영어가 세계의 언어이자 세계를 위한 언어로 부상함에 따라 영어는 더 이상 하나의 지역어나 민족어 내지는 국가어로 통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 영어교육계에서도 진정 미국인만이 아니라 세계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2. 한국 ELT 문화교육의 현 주소와 과제

한국 ELT(English Language Teaching)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영·미권의

문화적 요소를 언어 습득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취급하여 주입식으로 교육 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소위 중심국가, 즉 미국의 문화가 무분별하게 소개 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일부 국가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막연히 동경하게 하는 잠재적 교과과정의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성기완, 2007).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1~3학년 12종 7차 교육과정 영어교과서<sup>12</sup>의 내용 중 문화와 관련된 부분만 뽑아내어 정리, 분석하였다. 이 조사에서 놀랍게도 우리 영어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문화가 주로 미국문화에 치우쳐 있었고, 그 내용 또한 영어교육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표 2>에 그 예를 몇 가지 소개한다.

우리 영어교육 상황에서 이루어진 문화교육은 자국문화와 목표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문화차이를 나열하거나 제한된 국가 간의 문화차이를 지도하기 위한 내용이 많았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 7차 교육과정의 영어교과서도 이러한 논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즉 영어교육의 명목 하에 미국문화와 미국인의 생활양식 그리고 사고방식을 지나치게 많이 다루고 있다. 그리고 문화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화 간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나 다양성(diversity)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교과내용 개발과 실제적인 교수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다루어지는 인권, 평등, 환경과 같은 개념들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이다(지계순, 2005). 영어가 EIL로 교육되는 교육환경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교수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문화를 언어학습의 주변적인 것으로 다루거나 특정한 기득권 문화를 지나치게

12 중앙교육, 금성출판사, 한국교육미디어, 시사영어사, 범문사, 장원교육, 능률, 지학사, 대한교과서, 천재교육, 현대영어사에서 발간하는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를 분석하였다.

표 2 | 현재 12종 영어교과서 내용 중 문화적 요소(일부)

교과서	단원	학습영역	학습요소	학습내용
금성출판사	9	언어	지혜와 관련된 속담	SADD(Students Against Drunk Driving), MADD(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한국교육미디어	9	언어	속담	The National Air and Space Museum is one the best things about Washington D.C.
대한교과서	11	일	미국인의 자선 사업	1770-1827. 어머니의 병 때문에 비엔나에 왔고 아버지의 구타로 귀먹음. 9개의 교향곡 작곡.
현대영어사	9	일	Optimism and Pessimism	1966년 존슨 대통령이 6월 세 번째 일요일을 공식적인 아버지의 날로 선포.
장원교육	5	여행	Titanic	야구(American League와 National League 등 3개 Division), NFL 하에 2개 Conference → 각 3 divisions
지학사	1	인터넷	과학과 미술의 미래 (인터넷자료)	미국인은 최소 하루 4시간 TV시청을 한다. 광고주가 아닌 시청자가 지불하는 건전 공영방송 PBS.
대한교과서	8	교제	We Americans 는 일반화되지 않은 표현	슬리퍼(팔신), 아이스크림(얼음 보숭이), 노크(손기척), 코너킥(구석차기), 주스(과일단물)
천재교육	9	문학	미국의 테이케어센터	소규모의 미국 도시에는 많은 자원 소방관들이 무보수로 일한다. 자원 소방관 수는 정규 인원의 3배.
대한교과서	4	음식	미국 레스토랑에서의 Tip	American universities often will look at your complete high school picture.

강조하게 되면 서구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동의와 획일적인 사고의 형성이 영속화될 수 있으며(Kumaravadivelu, 2008), 지나친 미국식 사고와 생활양식을 체득할 위험도 있다.

### 3. 언어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과 또 다른 문제점

언어제국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나 교육자가 주장하는 바는, 언어 교사들

은 EFL과 ESL의 다른 초점, 세계적 불평등과 영어수업에서의 언어, 어떻게 그들이 국제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칠 때 불평등을 개념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지배적인 언어를 가르치되 어떻게 언어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지를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의 언어제국주의적 속성과 영어의 상징적 권력은 영어가 국제어 역할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유효하다. 영어의 권력은 그것의 국제적 담론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영어사용자의 경제·정치적 담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국제어로부터의 담론을 배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는 언어적 담론의 관점에서 구조적 결정론을 초래할 수 있고, 여기서 영어는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국제어로서 영어를 가르칠 때 언어제국주의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Canagarajah, 1999).

언어제국주의에 저항하고 국제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칠 때 이러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이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비판적인 민족지적 방법을 사용하여 실제적인 영어교육을 비판한다. 영어를 가르칠 때 이러한 방법은 문화와 담론에 초점을 맞추어 영어 학습자들의 명백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행동과 태도를 고려한다(Canagarajah, 1999: 85-88). 이러한 민족지적 방법과 더불어, 탈식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서양의 문학과 말 속에 나와 있는 제국주의적 요소에 대해 ‘되받아 쓰기(writing back)’, ‘되받아 말하기(talking back)’도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중심국(BANA)에서 만들어진 교수법이나 교재를 현지의 풍토와 문화에 맞게끔 변화시켜 활용하는 전유(appropriation) 방법이나,<sup>13</sup> 실

---

13 카나가라자는 타밀(Tamil)지역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영어와 서양의 영어교수법에 대한 저항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언어제국주의에 대해 그들이 보이는 저항은 감상적

질적으로 필요한 교수법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Cherry Pick Strategy’, 실체와 본질이 없이 형식적으로 중심국의 교수법과 교재를 활용하는 ‘Busy Work Syndrome’, 영어교재와 영어교육을 단지 자국 학생의 ‘애국심 자극’<sup>14</sup>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저항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언어제국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나온 이러한 대안들은 그 또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안들은 국제어로서의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한계를 지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편견과 편협한 시각을 잉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자국 중심적 세계관과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언어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은 저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며, 세계화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이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 또 다른 부작용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영어교육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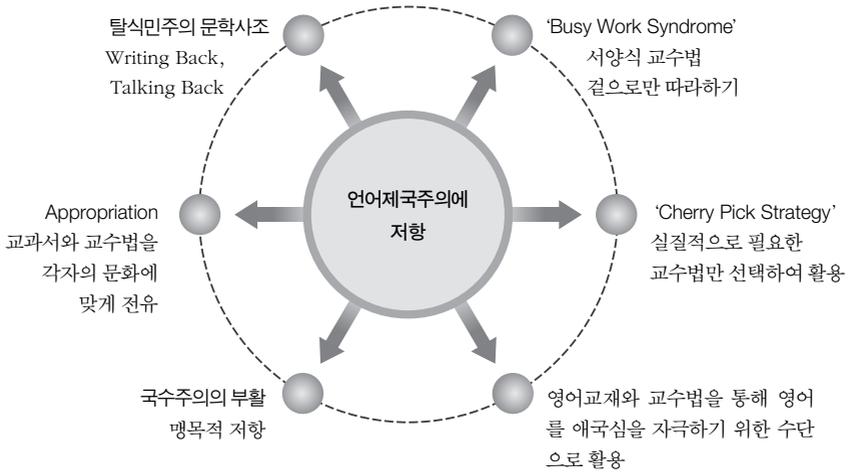
영어교사나 영어전문가는 학교를 더 넓은 사회와 연결 지을 필요가 있다. 세계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게 만들기 위한 영어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국제어로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교사는 세계화 과정에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시키는 실용적인 견지에서 다른 문화 간 교육을 고려할 필요가 있

---

이고 국수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영어교육은 또 다른 형태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저항은 국제어로서 영어를 학습하고 교육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언어제국주의에 대한 바람직한 저항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4 파키스탄의 경우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관계를 영어교과서에 반영하고 단지 파키스탄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그들의 이념과 문화의 우수성)을 영어교재에 반영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림 2 | 언어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다. 예컨대,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영어교사는 교실에서 그들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수 재료로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가? 또한 문화 학습을 통해 영어를 학습하거나 혹은 그 역에 초점을 둔 타문화적 상황에서 학생들이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세계화시대에 요구되는 국제이해교육의 목표와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미국식 문화를 일방적으로 주입함으로써 초래되는 편협한 세계관 형성과, 언어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중심국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자 EIL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 국제어로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IV. 국제이해교육의 원리를 적용한 영어교육 문화 콘텐츠

국제이해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sup>15</sup>은 세계화에 대한 대응과 다인종·다문화사회를 위한 교육적 대안으로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해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제도적으로 교과과정에 편성하여 비중 있게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6</sup> 국제이해교육의 핵심내용과 구체적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실천적 개념을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3)은 국제이해교육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모든 인간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민족·문화·생활

---

15 국제이해교육이라는 용어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학계에서는 여전히 다른 용어(다문화이해교육, 세계화교육, 세계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국제화교육 등)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북미나 유럽 쪽은 대체로 세계교육(global education)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쓰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념적 논쟁을 뒤로하고 ‘국제이해교육’으로 표기할 것을 밝힌다.

16 국제이해교육의 필요성은 대학의 인재양성프로그램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의 2007년 교과과정 개편을 예로 들어보면, 1980년대에 시작한 다문화주의 교과과정 개편 논쟁에 이라크 전쟁을 위시해 미국의 신보수주의자(Neocon)의 대외정책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동안 개설했던 교과목으로는 미국 중심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제이해교육이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현재 교과과정에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수의 리더들을 배출하는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인종문제·글로벌 리더십·자민족 중심 사고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무방비하다고 지적 받아 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이해교육을 필수과목에 포함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동시에 세계화의 조류에 발맞추고 진정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Societies of the World)’를 도입하여 다른 나라의 가치·관습·제도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세계 속의 미국(The United States in the World)’이라는 과목에서는 미국의 사회·경제·정치제도는 물론 국제사회와 미국 간의 관계를 두루 소개하고 있으며 필수화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기독교과 아닌 서로 다른 종교에 관련된 과목도 결국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이 내용은 <http://www.boston.com>의 「Harvard proposes curriculum overhaul」을 참조하였다(검색일: 2008년 3월 2일).

습관 등을 바르게 이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정의와 평등의 가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로운 세계를 일구어내는 세계시민의 의식과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세계교육전문가인 타이Tye(1998)는 세계교육global education을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공통으로 겪는 세계문제와 세계이슈에 대한 학습 외에 문화, 생태, 경제, 정치 그리고 기술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지구체제에 대한 학습이며, 우리와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웃을 인정하며, 타인과 눈과 마음으로 세계를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요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학습.

이상을 토대로 국제이해교육을 정의하면,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계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타자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갖춘 세계시민을 기르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영어를 국제어로서 학습한다면 우리의 영어교육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에게 가용可用的한 영어교과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미국이나 서방의 말과 문화를 대변함으로써 우리를 암묵적으로 그들의 문화영향력하에 놓이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상기한 국제이해교육에서 지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하는 방안이다.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이해교육은 인류의 기본적으로 본질적이며 일반적인 보편적 가치를 공통된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또한 이러한 공통된 가치를 서로 공유해 나가며 각자의 독특한 개성을 개인별, 사회별, 국가별, 지역별, 세계적 차원으로 최대한 발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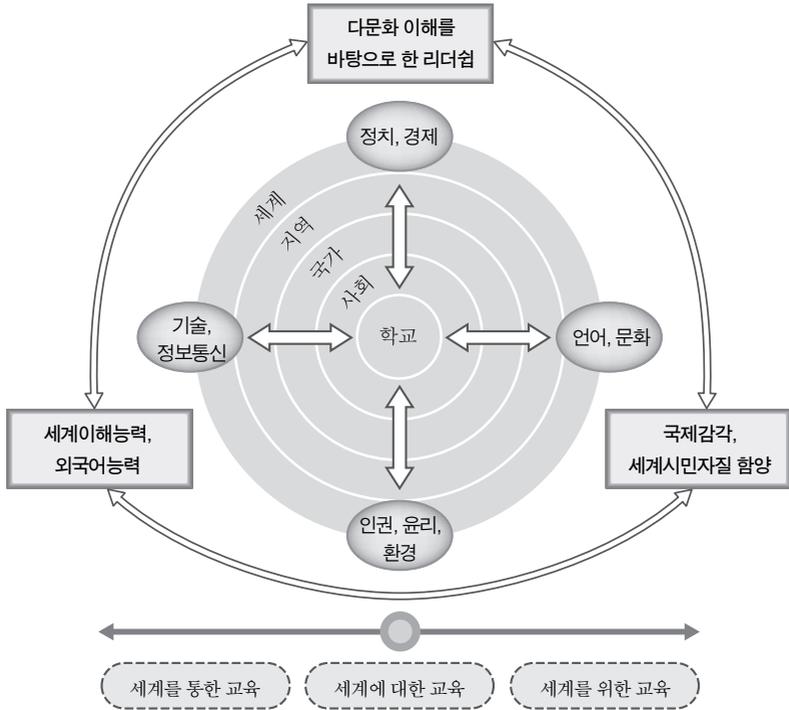
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학교라는 공간도 지구촌과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언어·환경·정보통신 등의 요소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세계화시대에 우리 영어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새로운 시대 환경과 흐름에 맞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학생들에게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겸비하도록 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국제 감각과 외국어능력, 세계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다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 등을 함양할 수 있는 영어교육과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세계화시대에 새로운 경쟁력 구비는 세계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the world · 세계를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the world · 세계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the world)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sup>17</sup> [그림 3]과 같이 개념도를 구상했다.

국제이해교육을 통해 우리의 영어교육이 세계적인 외국어교육의 흐름과 조우하고 안으로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 그리고 우리 안의 문화·언어제국 주의적 속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아가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시야를 제공해주고 문화적 편견과 언어적 선입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시민성을 갖춘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콘텐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17 '세계에 대한 교육'은 세상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는 단계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변동, 다문화 이해, 국제적 이슈가 기술된 텍스트를 통해 비판력, 고등사고력, 의사소통력과 연대 및 공감과 같은 태도에 관한 교육단계이다. '세계를 통한 교육'은 세상에 대한 습득된 지식, 기능과 태도를 가지고 주어진 지식에 대해 심화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단계로서, 현실의 사례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며, 때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교육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세계를 위한 교육'은 세상을 읽고 볼 줄 아는 능력인 세계이해력(world literacy)이 생긴 상태에서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를 위해 참여하고 협동하도록 이끄는 교육으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 지킬 수 있는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교육 단계이다(이상목, 2006: 4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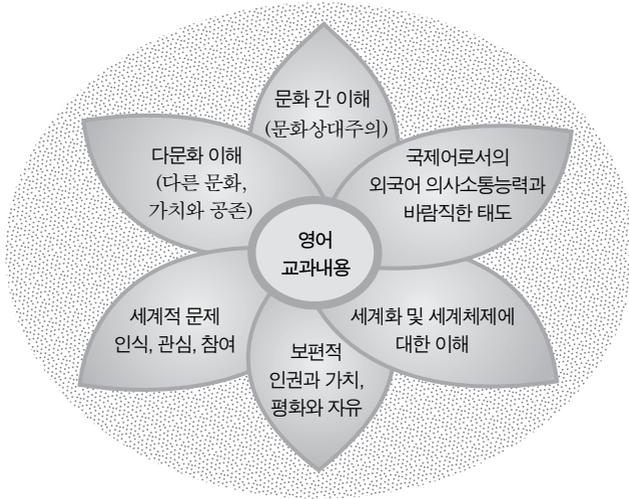
그림 3 | 국제이해교육의 개념을 적용한 개념도 (필자 구성)



[그림 4]는 우리 영어교과 내에 포함되어야 할 콘텐츠의 주제를 보여준다. 문화상대주의 입장에서 문화 간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 세계적 문제(인권, 세계체제에 대한 이해, 환경, 다문화 이해 등)에 관한 내용, 국제어로서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에 관한 내용 등이 국제이해교육의 관점으로 우리 영어교과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다.

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구촌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 없이 문화를 존중하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영어도 영국영어, 미국영

그림 4 | 영어교과 콘텐츠에 담을 주제 (필자 구상)



어, 호주영어, 뉴질랜드영어뿐만 아니라 인도영어, 중국영어, 일본영어, 한국영어 등등 복수개념의 ‘World Englishes’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EIL로서의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림 4]의 주제가 적합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주제들은 영어교육을 하면서 언어제국주의의 위험을 예방하고 진정 세계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문화 교육의 대안이 될 것이라 믿는다.

## V.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새로운 제안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미인에 국한되었던 예전과 달리 국제어로

서의 영어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시각으로 영어에 접근하도록 가르치고 무슨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때가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식 언어제국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알게 모르게 우리 의식의 한편에는 편향된 미국식 사고와 논리가 체득되어 있고, 이러한 논리는 우리의 영어교육현장에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언어교육에 있어 기존의 비평교육 이론가들의 주요 초점은 지배적인 언어를 가르치되 어떻게 언어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 그들의 논리를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들의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설명해보면, 흔히 ‘민족주의-오리엔탈리즘-탈식민주의’ 담론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우리 안’에서 복제 식민주의 의식과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는 것이 옥시덴탈리즘인가? 이러한 논리를 따라가면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라는 식의 키플링Kipling의 차별적 경구를 따라가는 것이고, 이는 동양의 일부 전통이 서양의 현재보다 낫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즉, 식민주의 문학사조나 언어정책은 지배자의 권력을 대변하는 것이었으니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동으로 서양의 것을 배척하고 복수하는 형태(되받아쓰기, 맹목적 국수주의 등)의 탈식민주의적 움직임은 또 다른 편견과 선입관을 잉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대안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영어교육을 해야만 하는가? 국제어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차원에서 보면 영어교육자가 학생들에게 어디까지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화되어가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여러 문제들을 바라보는 세계적 시각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어로서의 영어를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이해교육은 세계 여러 나라가 공통으로 겪는 세계문제와 세계이슈에 대한 학습 외에 문화, 생태, 경제, 정치 그리고 기술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지구체제에 관한 교육이며, 우리와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웃을 인정하며 타인의 눈과 마음으로 세계를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요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다. 세계시민으로서 세계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과 의식 그리고 세계관을 배우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우리 영어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질적으로 외국어와 외국문학교육을 통해서 국제이해와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교재내용과 방법에 관한 링구아팍스Linguapax 프로젝트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sup>18</sup>

우리가 영어를 국제어로서 교육한다면, 우리의 영어교육에서 문화교육도 변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 가용한 영어교과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미국이나 서방의 말과 문화를 대변하고 있고, 우리를 암묵적으로 그들의 문화영향력하에 놓이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국제이해교육에서 지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

18 영어교사들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특정한 공헌은 유네스코의 링구아팍스Linguapax 프로젝트에 명시되어 있다. 「링구아팍스 키에브 현장」(유네스코, 1987)에서는 이에 대해 외국어와 외국문학교육을 통해서 국제이해와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교재 내용과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제현장이 전 세계에 있는 외국어교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교사들이 외국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제이해를 증진할 책임감을 자각시키고, 평화, 관용, 국제이해에 기초한 언어교과과정을 기획하며, 언어교과서에서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제거하고, 학생들이 세계적인 이슈들이나 다른 나라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영어교사들에게 영어는 다문화적인 지구촌을 알고, 국제이해를 증진하고,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의 지구촌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즉, 세계인과 의사소통하고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세계관과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어교사를 포함한 영어 관련 교육자의 임무가 된 시대가 온 것이다. 또한 영어라는 공통의 의사소통수단을 이용하여 교양 있고, 세계의 문화와 그 차이를 이해하며, 지적 균형이 잡힌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을 고루 갖춘 인재가 양성되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진정 세계인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국제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바람직한 영어교육 방향은 세계인과 의사소통 가능케 하는 문화교육이 될 수 있는 국제이해교육 내용 콘텐츠를 담아 교육하는 것이며, 그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 있는 영어교육을 위해 국제이해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영어교재를 편성하고 이에 관련된 여러 활동을 개발한다면, 단순히 미국 중심적인 편향된 문화교육을 넘어 균형 잡힌 영어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세계인과 의사소통하고 세계인을 이해하는 데 영어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언어제국주의적 속성을 극복하고 세계시민으로 세계인과 진정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할 것이다. 즉, 세계화시대에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세계적 문제나 다문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제국주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평적 반성을 바탕으로, 국제어로서 영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할 때가 왔다. 이를 위해 영어교육자는 국제이해교육 구성 내용을 영어교재 콘텐츠 내에 가져오고, 영어를 배우는 것이 국제어로서 활용하기 위한 수단임을 피교육자에게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 2. 제언: 추후 연구과제에 관해서

첫째, 국제이해교육·다문화이해교육 원리 및 이론을 영어교육에 적용한 모형연구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이해교육·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어교육과 다문화의 이해라는 과목의 교과내용을 구성하고 학습활동에 대한 구체적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가 차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이해교육을 적용한 영어교육을 할 경우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적합한 영어교수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이해교육을 적용한 영어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학생들이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영어교육에 집중하고 영어실력 향상에 있어서 그 결과는 어떠한가에 대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어떠한 영어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이러한 교육에 맞는 영어교수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이해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우리 문화 자료를 영어로 표현하는 연구가 차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이해교육을 적용한 영어교육을 하는 데 우리 문화 자료들의 영역 英譯 가능성과 그 자료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문화 자료를 이용한 영어수업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이해교육·다문화이해교육을 적용한 영어 워크북 workbook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어교재 개발에 지침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주제에 대한 학술적,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화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 있는 영어교육을 위해 국제이해교육 및 다문화이해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영어 워크북을 편찬하고, 워크북의 내용에 관련되는 여러 활동을 개발하여 현장 영어교육자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단순히 미국 중심의 편향된 문화교육을 넘어 균형 잡힌 영어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세계인과 의사소통하고 세계인을 이해하며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영어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향을 영어교사들에게 제시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한 언어제국주의적 속성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세계인과 진정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며, 세계화시대에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세계적 문제나 다문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영어교육이 이루어져 국제어로서 영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명배(2006). 개화기의 영어이야기. 서울: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출판부.
- 성기완(2007). 다문화교육과 영어교육의 연계 필요성 고찰 및 교과과정 모형연구.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2(1). 49~52.
- 안중협(2008). 교육현장에서 본 언어제국주의. *대한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4~53.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3). 세계시민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서울: 사람생각.
- 윤지관(2007). 영어, 내 마음의 식민주의. 서울: 당대.
- 이상목(2006). 국제이해교육의 내용과 발전방향 비교연구: 한국, 미국, 프랑스 사

- 회과교과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창봉, 박주식(2007). 문화제국주의와 비판적 영어교육 커리큘럼. *응용언어학* 23(1). 173~200.
- 지계순(2005). 영어교육의 관점에서 본 미국인의 문화가치 연구. *영어교육연구* 26. 157~184.
- Brown, H. D.(2002). *Principle of Language Teaching*(4th ed.). New York: Longman.
- Canagarajah, S.(1999). *Resisting Linguistic Imperialism in English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rystal, D.(2000). *Language Dea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03).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scal, M.(1996). *Endangered Languages*.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 Giroux, H. A.(1991). *Border Crossings: Cultural Workers and the Politics of Education*. London: Routledge.
- Holliday, A.(1992). *Appropriate Methodology and Social Contex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chru, Y.(1998). *Culture, Context, and Writing: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rkpatrick, A.(2006). *World English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maravadivelu, B.(2008). *Cultural Globalization and Language Educatio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Pennycook, A.(1995). *The Cultural Politics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New York: Longman.
- (2001). *Critical Applied Linguistic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hillipson, R.(1992).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ivers, W. M.(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kuntnabb-Kangas, T.(2002). *By Means of Performance: Intercultural Studies of Theatre and Ritu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olan, M.(2008). Recentring English: new English and global. *English Today* 52(13), 3-10.
- Tye, Kenneth A.(1998). Global education: A Worldwide movement. Interdependence Movement(April).
- UNESCO(2003).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Paris: UNESCO Publications.
- (2005). *Sharing a World of Difference*, Paris: UNESCO Publications.

## Abstract

Triumphing over Linguistic Imperialism:  
Presenting New ELT Culture Teaching Approaches  
for the Enhancement of Global Citizenship  
and Communication Competences

Ahn, Jonghyub

(Professor, The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 before presenting theoretical and pedagogical rationales for encompassing the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ELT. A state of current culture teaching in ELT has been influenced by the linguistic imperialism with the emphases of cultural education about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I tried to come up with new approaches to contents of ELT. Fundamental philosophy behind the new approaches to English education contents is integrations and balance under a critical stance about the identity of English and counter-discourse approaches. In this proposed contents, heavy emphases are put upon developing English curriculum contents that contribute to the student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and English as an EIL. For this, this study is to explore why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s necessary in the current ELT in order to overcome linguistic imperialism. Finally, I hope that the concrete ways about how to adopt the EIU and curriculum development on it need to be followed up as a further studies.

Key words: culture teaching, English education, global education, linguistic imperialism, world Englishes